

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1차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담 TF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급 대상 확인부터 신청 방법, 지급 수단, 현장 대응체계까지 전 과정을 종합 점검하며 지급 준비에 마지막 고삐를 죄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6만명이며, 총 947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8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재원은 국비 80%(758억원), 도비 10%(95억원), 시군비 10%(95억 원)로 분담되며, 국비는 이미 시군에 교부 완료됐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신청 초기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등은 50만원

요일제 신청, 혼잡 예방

도·시군 콜센터 가동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순이며, 5월 1일 노동절에는 신청이 불가해 해당대상자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

카드, 선불카드 중 도민이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유통·여행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도는 지급 기간 중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 자체 콜센터를 운영해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사용처 안내 스티커 배포 등 보조 인력 387명을 투입해 현장 대응 인력도 확보했다. 온라인(SNS·카카오톡

채널)과 오프라인(LED 전광판) 홍보를 병행하며, 스미스 피해 예방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도비 매칭분(308억원)은 2차 지급 대상자와 최종 예산액 확정 이후인 6월 임시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25만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1·2차를 합산한 총 사업비는 3,088억 원 규모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유가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3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선거장비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김상곤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에 참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지선 대비 선거장비 시연회

사전투표 운용 장비·회송용봉투 접수기·투표지분류기 등 시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3일 오전 11시 전북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도선관위 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장비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거장비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연회는 선거장비 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사전투표 운용장비(본인확인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 △회송용봉투 접수기(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절차) △회송용봉투 개봉기(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개봉 절차) △투표지분류기(투표지 분류 및 개표상황표 출력 절차)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선거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올 한해 안전영농 기원... 도, 정읍 낙양취입보 통수식

섬진강 용수 공급 개시로 정읍·김제·부안 3만3천ha 농경지 안정적 물 공급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호남평야에 물길을 열어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도는 23일 정읍시 태인면 낙양관리소에서 2026년 안전영농기원 통수식(백파제)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전북농업안전재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풍년 농사와 안전한 영농을 기원했다.

통수식은 섬진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하기에 앞서 무재해·무사고 영농을 다짐하는 전북 농업의 대표적 행사다. '백파(百派)'는 낙양취입수문 기념비에 새겨진 '일원종시백파(一源(德)宗時百派)'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의 물줄기가 백 갈래로 퍼져 호남평야를 적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낙양취입보를 통해 방류된 섬진강 용수는 정읍·김제·부안 일원 3만3,177ha에 달하는 농경지로 공급된다. 이는 도내 전체 농경지의 약 30% 수준으로, 김제·정읍 간선 등 총연장 154km의 용수로를 따라 공급되며 가뭄과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한

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격려사, 급수계획 보고, 수질개선 결의, 통수문 개방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북자치도는 섬진강과 낙양취입보 등 주요 수자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에 흘려보내는 농업용수 한 줄기 한 줄기가 농업인들의 땅과 정성 속에서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바란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용수 관리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정읍시 태인면낙양관리소에서 '2026년 안전영농기원 통수식(백파제)'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행안부와 여름철 재난대비 비축현장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23일 완주군 상관면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물품 비축현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행안부와 전북도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난관리 물품 비축 현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 물품의 비축 상태와 관리 시설, 긴급 동원 및 보급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수중펌프, 엔진펌프 등 중요 재난 대응 장비의 기능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재난 상황을 가정된 장비 시연과 자원 지원 절차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완주군과 연계한 재난장비 긴급 지원 시연을 통해 실제 대응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도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는 풍수해, 화재·산불, 감염병, 수질오염, 공복·응급 등 5개 분야 113종, 약 20만여 점의 재난관리 물품을 비축·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산불, 수질오염 등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해 총 67건, 약 7만9,000여점의 물품을 지원해 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산단,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 지원해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LEAPS for 새만금산단' 5대 과제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이 부지 제공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 등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새만금은 아직까지 특화단지 지정과 현대차 투자유치 등을 발판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초기 확장 단계를 지나 '플러시'형 성장기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훈 박사는 "반교 연구개발특구 등 국제 혁신클러스터는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핵심 과제, 일명 'LEAPS for 새만금산단'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지원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이다.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항목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식품산업진흥법, 연구개발특구법 등을 뛰어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만금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기업지원을 위한 전담 파트의 확보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연구개발특구본부

등의 사례처럼, 부처별로 유치한 국책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입주기업 서비스를 일원화한 전담 컨트롤타워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셋째, 산·학·연 융합형 기업생태계 조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학연협의체 사례와 같이 동종·이종 업종 간의 유기적 소통과 현장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가 자생적으로 창출되는 융합형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체험형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지원 발굴이다. 관교와 같이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메가특구), 인재(융합연구원), 재정(창업/세제), 금융(성장펀드), 혁신(자율R&D) 등 이른바 '새만금형 기업성장 5종 패키지'를 적기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하드웨어 기반의 미래산업단지를 위한 실험실로 고도화이다. 5·6공구 국내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험단을 3·7·8공구로 확대하고, AX/RE100실 등 추진하여 일 본 도요타 우븐시티처럼 새만금 산업단지형 신기술 실증 허브로 고도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이지훈 박사는 "새만금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땅을 만드는 것에

서, 들어온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안이 새만금 국가산단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내달 8일 명장 컨설팅 진정목 명장 노하우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8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북명장 신청을 준비 중인 예비 지원자와 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명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류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명장 제도 안내 △신청 및 접수 절차 설명 △대한민국명장 진정목 명장의 실천 노하우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명장에 선정된 뒤 2025년 대한민국명장에 오른 도자공예 분야 '진정목' 명장이 직접 참여해, 실제 신청 과정에서의 경험과 준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 '찾아가는 양조장' 2곳 동시 선정

정읍·순창 양조장 선정... 전통주 체험·관광 거점 육성 기대

발효문화·지역자원 결합 프로그램...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공모에 정읍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와 순창군 친구들의 술 저장지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 양조장을 관광·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전통주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대표 지원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소의 양조장이 신청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AT)의 서류평가를 거쳐 8개소가 선정된 뒤, 현장평가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소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2개소가 포함되며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읍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지역산 쌀과 누룩을 활용한 전통주 제조기술과 발효문화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통누룩 빚기, 약주·탁주 시음, 양조장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 누룩의 향과 맛을 재현하는 체험을 통해 전통주의 과학성과 정인정신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다. 순창군 '친구들의 술 저장지교'는 발효의 고장 순창의 지역성을 살려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페어링 시음, 나만의 증류주 만들기, 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 양조인과 지역 예술인이 협업해 발효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주 체험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조장들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길안내 간판과 포토존 설치, 전시시설 개선, 홍보영상·브루우어 제작 등을 진행해 방문객이 체험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도내 양조장이 전통주 산업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